

2023 국가직 9급: 2023. 4. 8. 시행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문제와 자세한 해설을 함께 올려 드립니다. 해설 강의는 4월 8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이후 커넥츠 공단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제 영역별 분석표

지식형 문항 (5)	국어 문법· 국어 규범 (2)	한글 맞춤법 (1): 준말 표준어 (1)
	어휘·한자 (3)	관용어 (1) 올바른 한자 표기 (1) 한자 성어 (1)
지문 분석형 문항 (15)	독해 (12)	조건에 맞게 쓰기 (1) 말하기의 종류와 원리 (1) 내용에 맞게 단락 배열하기 (1) 내용 일치 (6): 일치/부합 추론형 (3): 생략된 정보 추리하기, 제시문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론하기, 문맥에 맞는 내용 유추 및 고쳐 쓰기
	현대 문학 (2)	현대 시 (1) 현대 소설 (1): 문학 지문 독해
	고전 문학 (1)	사설시조 (1)

* 출제 문항별 분석표

1	독해	조건에 맞게 쓰기	11	독해	제시문과 일치하는 정보 찾기
2	독해	말하기의 종류와 원리	12	독해	제시문과 일치하는 정보 찾기
3	어휘·한자	관용어	13	독해	제시문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론하기
4	독해	내용에 맞게 단락 배열하기	14	독해	제시문과 일치하는 정보 찾기
5	현대 문학	현대 소설: 문학 지문 독해	15	국어 규범	〈표준어 규정〉
6	어휘·한자	한자 성어	16	독해	문맥에 맞는 내용 유추 및 고쳐쓰기
7	고전 문학	사설시조	17	현대 문학	현대 시
8	독해	생략된 정보 추리하기	18	독해	제시문과 일치하는 정보 찾기
9	국어 규범	〈한글 맞춤법〉 준말	19	독해	제시문과 일치하는 정보 찾기
10	어휘·한자	올바른 한자 표기	20	독해	제시문과 일치하는 정보 찾기

★ 선재국어 적중 내용은 동영상 해설 강의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평

2023년도 국가직 9급 시험의 특징적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년 시험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되었으며, 문제 역시 익숙한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역대 가장 높은 평균점을 기록한 작년 시험과 비슷한 선에서 합격선이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4년 동안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영역별 출제 문항 비율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기존 4~5문항이었던 문법과 규범이 2문항으로 축소된 반면, 독해는 9문항에서 12문항으로 늘어, 예상한 대로 독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임을 입증한 시험이었다. 또한 한자와 한자 성어, 어휘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어, 어휘 영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던 시험이기도 했다.

셋째, 독해가 절대적으로 강조된 반면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 난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시험이었다. 문제 유형은 특별히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화법, 내용 일치,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등 학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유형의 문제가 평이한 난도로 출제되었다. 또한 인혁처의 발표로 뜨거운 화제가 되었던 추론형 문제도 기존의 기출 유형으로 출제되어 변별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독해 문제가 단문으로 출제되었으며, 총 12문항 중 6문항이 내용 일치 유형이었다는 것 역시, 시험의 난도가 낮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처럼 2023 국가직 시험은 난도와 유형 모두 평이했으나, 앞으로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준 시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난도는 낮았으나 '지문 독해를 바탕으로 한 추론형 강화'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험이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까지처럼 꾸준히 《독해야 산다》 등의 독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앞으로 난도는 시험별로 적절히 조절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유형이나 난도가 높은 문제 등을 폭넓게 풀어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대비하도록 하자.

또한 이번 시험에서 한자, 한자 성어, 어휘 등의 문제는 예년과 동일하게 3문항이 출제되었고, 국어 규범 역시 단순 암기 유형으로 출제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국어 능력 강화'라는 큰 방향성을 유지하되, '국어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지식형으로 묻는 시험의 특성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험을 국어 능력의 향상에 맞추되, 기본적인 지식 습득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늘 강조했듯이 《독해야 산다: 점수를 바꾸는 15분》 등의 훈련에 꾸준히 참여했던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을 통해 다시 한번 독해 훈련의 중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성실한 훈련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합격선이 높아진 시험에서 최고 득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기를 바란다.

*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합격이라는 결과로 곧 맺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1. '해양 오염'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 할 때, 다음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포함할 것
- 설의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바다는 쓰레기 없는 푸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를 서서히 죽이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우리의 관심만이 다시 바다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 ②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갔다가 해양 생물의 몸에 축적이 되어 해산물을 섭취하면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 줄이는 것이 바다도 살리고 우리 자신도 살리는 길입니다.
- ③ 여름만 되면 피서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피서객들의 양심이 모래밭 위를 덩굴고 있습니다.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집으로 되가져가도록 합니다.
- ④ 산업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가 고래가 죽어가는 장면을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인간도 고통받게 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산업 폐기물 관리 지침을 만들고 감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바다는 쓰레기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답: ③

해설: 조건에 맞는 글을 찾는 문제이다.

“자기 집이라면 ~ 쓰레기를 버렸을까요?”에서 설의적 표현을,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에서 비유적 표현(의인법)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집으로 가져가자는 데에서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바다는 ~ 꿈꾸고 있습니다”와 “미세 플라스틱은 ~ 독입니다”에 비유적 표현이 나타난다. 그러나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이나 설의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에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이 나타나지만, 설의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대로 가다간 ~ 앓을까요?”에서 설의적 표현을, ‘바다는 쓰레기 무덤’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 생활 속 실천 방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유형 적중! 《2023 나침반 기출 변형 모의고사》 11회 15번 / 《2023 실전 봉투 모의고사 1》 제1회 8번 등

2.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백 팀장:** 이번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게 좋겠어요.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고 대리: 전 반대합니다. 사내 게시판에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타 부서와 비교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임 대리: 저도 팀장님 말씀대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다른 팀원들의 동의도 구해야 할 것 같고, 여러 면에서 우려되긴 하네요. 팀원들 의견을 먼저 들어 보고, 잘된 것만 시범적으로 한두 개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 ① 백 팀장은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바람을 전달하고 있다.
- ② 고 대리는 백 팀장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며 백 팀장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 ③ 임 대리는 발언 초반에 백 팀장 발언의 취지에 공감하여 백 팀장의 체면을 세워 주고 있다.
- ④ 임 대리는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묻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해설: 대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백 팀장은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바람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② 고 대리는 워크숍 영상을 공개하는 데에 대한 부담과 타 부서와의 비교를 이유로 들어 사내 게시판에 영상을 공개하자는 백 팀장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 ③ 발언 초반에 ‘저도 팀장님 ~ 좋다고 생각해요’에서 임 대리는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백 팀장의 취지에 공감하며 백 팀장의 체면을 세워 주고 있다.
- ④ 임 대리는 ‘팀원들 의견을 ~ 어떨까요?’에서 질문을 통해 워크숍 장면의 사내 게시판 공개에 대한 팀원들의 의견을 먼저 파악하자는 의견을 백 팀장과 고 대리에게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유형 적용! 《2023 나침반 기출 변형 모의고사》 3회 13번 등 / 《2023 실전 봉투 모의고사 1》 제4회 19번 등

3. 관용 표현 ㉠~㉣의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그의 회사는 작년에 노사 갈등으로 ㉠ 홍역을 치렀다.
- 우리 교장 선생님은 교육계에서 ㉡ 잔뼈가 굵은 분이십니다.
- 유원지로 이어지는 국도에는 차가 많이 밀려 ㉢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 그분은 세계 유수의 연구자들과 ㉣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물리학자이다.

- ① ㉠: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 ② ㉡: 오랫동안 일을 하여 그 일에 익숙한
- ③ ㉢: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 ④ ㉣: 비슷한 지위나 힘을 가지는

정답: ③

해설: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송곳 끝도 세울 수 없을 정도라는 뜻으로, 발 들여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꽂 들어찬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의 의미를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로 풀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입추(立錐): 송곳을 세움.

오답 풀이: ① 홍역(을) 치르다: 몹시 앓을 먹거나 어려움을 겪다.

② 잔뼈가 굵다: 오랜 기간 일정한 곳이나 직장에서 일을 하여 그 일에 익숙하다.

④ 어깨를 나란히 하다: 서로 비슷한 지위나 힘을 가지다. / 나란히 서거나 나란히 서서 걷다. / 같은 목적으로 함께 일하다.

적용! 《2023 선재국어 1권》 407쪽, 413쪽 / 《2023 매일 국어 시즌 4》 9회 9번

4. 다음 글에서 (가)~(다)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빅데이터가 부각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측면도 있다.

(가) 기업들은 고객이 판촉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며 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마케팅 조사를 해 왔다.

(나)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SNS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페이스북에 올리는 광고에 친구가 ‘좋아요’를 한 것에서 기업들은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

(다) 그런데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아쉬운 점도 많았다. 쉬운 예로, 기업들은 많은 광고비를 쓰지만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는 알지 못했다.

결국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기업들은 점점 더 고객의 취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소셜 미디어의 빅데이터를 중요한 경영 수단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④ (다) - (나) - (가)

정답: ②
해설: 문장의 바람직한 배열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기업이 소셜 미디어의 빅데이터를 경영 수단으로 수용한 원인을 살펴보는 글이다.

데이터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관점이 변화하며 빅데이터가 기업에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 (가) 기업들은 판촉 활동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마케팅 조사를 해 왔다. → (다) 그런데 기업들의 그런 노력은 광고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 알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었다. → (나)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소셜 미디어의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하면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소셜 미디어의 빅데이터를 중요한 경영 수단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5.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무진(霧津)엔 명산물이…… 뭐 별로 없지요?”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별게 없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스럽거든요.”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조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심(水深)이 얕은 데다가 그런 얕은 바다를 몇백 리나 밖으로 나가야만 비로소 수평선이 보이는 진짜 바다다운 바다가 나오는 곳이니깐요.” “그럼 역시 농촌이군요?” “그렇지만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오륙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든 살아가나요?” “그러니까 그럭저럭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들은 점잖게 소리 내어 웃었다. “원, 아무리 그렇지만 한 고장에 명산물 하나쯤은 있어야지.” 웃음 끝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엔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땀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 김승옥, <무진기행>

- ① 수심이 얕아서 항구로 개발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 ②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야가 많이 발달하지 않은 공간이다.
- ③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비해 인구가 적지 않은 공간이다.
- ④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로 안개가 유명한 공간이다.

정답: ④
해설: 김승옥의 <무진기행(霧津紀行)>은 ‘무진’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여 안개로 상징되는 허무로부터 벗어나 일상의 공간으로 돌아오는 한 젊은이의 귀향 체험을 그린 소설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안개’가 ㉠ ‘무진’의 명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진엔 명산물이…… 뭐 별로 없지요?’, ‘원, 아무리 그렇지만 한 고장에 명산물 하나쯤은 있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나’가 말한 ‘안개’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의 명산물인 것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바다가 가까워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수심이 얕아 항구로 개발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답변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 ② ‘그렇지만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에서 알 수 있다.
- ③ ㉠ ‘무진’은 명산물도 없고, 항구로 발전할 조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곳도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적중! 《2023 선재국어 2권》 186~187쪽

이 시조는 초장에서 ‘못 오던가’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자신에게 오지 않는 ‘너’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한 달(=서른 날)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하루의 짧은 시간도 내지 않는 ‘너’에 대한 화자의 원망과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날짜 수를 대조하여 헤어진 기간이 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중장에서는 ‘성, 담, 집, 뒤주’ 등의 동일한 어휘가 연쇄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는 ‘너’가 자신에게 오지 못하는 이유를 추측하여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지, 감정의 기복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 ④ ‘길 위에 무쇠로 쌓은 성 → 성안에 담 → 담 안에 집 → 집 안에 뒤주’ 등과 같이 공간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공간이 축소될수록 ‘너’가 화자에게 오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되는 것이므로, ‘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적중 《2023 선재국어 2권》 292쪽 / 《2023 매일 국어 시조 3》 실력 확인 모의고사 1번

8.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체 근육의 특정 움직임을 조작하는 능력을 운동 능력이라고 한다. 언어에 관한 운동 능력은 ‘발음 능력’과 ‘필기 능력’ 두 가지인데 모두 표현을 위한 능력이다.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발음 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음성 기관을 움직여 원하는 음성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영·유아기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꾸준한 훈련을 통해 습득된다. 이렇게 발음 능력을 습득하면 음성 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되어 음성 기관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화자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기 능력이 필요하다. 필기에서는 글자의 모양을 서로 구별되게 쓰는 것은 기본이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잘 쓰는 것도 필요하다. 글씨를 쓰기 위해 손을 놀리는 것은 발음을 하기 위해 음성 기관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 상당히 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손을 놀리는 데에 (나) 의미한다.

- ① (가): 음성 기관의 움직임이 모어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어
(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음을
- ② (가): 낮은 음성은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도록 훈련되어
(나): 유아기에 수행한 훈련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 ③ (가): 음성 기관의 움직임이 모어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어
(나): 유아기에 수행한 훈련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 ④ (가): 낮은 음성은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도록 훈련되어
(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음을

정답: ①

해설: 생략된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 (가) 2문단에 따르면, 영·유아기에 습득되는 발음 능력은 음성 기관의 움직임이 자동화되어 화자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음성 기관의 움직임이 영·유아기에 습득된 모어를 기준으로 자동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필기 능력은 발음 능력에 비해 상당히 의식적이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필기 능력이 발음 능력과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인 면이 있으며, 화자가 의식하지 않아도 손을 놀리는 것이 어느 정도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에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음’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오답 풀이: (가) 2문단에서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낮선 음성)은 발음하기 어렵다고 했으므로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도록 훈련되어’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나) 필기 능력이 유아기에 수행한 훈련으로 습득되는지는 제시문에서 알 수 없다. 또한 2문단을 바탕으로 할 때, ‘꾸

11.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관점 혹은 어떤 평가 기준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정신 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한마디로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혹 어떤 사람이 자신은 어떤 프레임의 지배도 받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닐 것이다.

- ① 인간의 정신 활동은 프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프레임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편향성을 가지게 한다.
- ③ 인간의 지각과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 ④ 프레임은 인간의 정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맥락이나 평가 기준이다.

정답: ③

해설: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인간은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과 같은 프레임을 바탕으로 지각과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제시문에서는 프레임을 극복해야 하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인간의 지각과 사고의 확장을 다루고 있지도 않다.

오답 풀이: ①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은 어떤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어떤 맥락이나 가정'은 프레임을 의미하므로 ①은 적절하다.

② 인간은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 편향성(偏向性): 한쪽으로 치우친 성질

④ '어떤 맥락, 관점 ~ 프레임이라고 한다'와 '우리의 모든 정신 활동은 ~ 어떤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에서 알 수 있다.

12.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항공기인 보잉과 에어버스의 중요한 차이점은 자동 조종 시스템의 활용 정도에 있다. 보잉의 경우, 조종사가 대개 항공기를 조종간으로 직접 통제한다. 조종간은 비행기의 날개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조종사가 조작한 대로 반응한다. 이와 다르게 에어버스는 조종간 대신 사이드스틱을 설치하여 컴퓨터가 조종사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조종에 개입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보잉에서는 조종사가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지만 에어버스에서는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감시하고 제한한다.

보잉과 에어버스의 이러한 차이는 기계를 다루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다. 보잉사를 창립한 윌리엄 보잉의 철학은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다."이다.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가 조종사의 판단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에어버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베테유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전제한다. 베테유는 이런 자신의 신념을 토대로 에어버스를 설계함으로써 조종사의 모든 조작을 컴퓨터가 모니터링하고 제한하게 만든 것이다.

- ① 보잉은 시스템의 불안전성을,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 ② 베테유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지만 윌리엄 보잉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 ③ 에어버스의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에서 자동 조종 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작한다.
- ④ 보잉의 조종사는 자동 조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항공기를 조종한다.

정답: ①

해설: 제시문과 부합하는 내용을 찾는 문제로, 자동 조종 시스템의 활용 정도를 기준으로 항공기 보잉과 에어버스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보잉은 조종사가 대개 항공기를 조종간으로 직접 통제하게끔 설계되었지만, 에어버스는 컴퓨터가 조종사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조종에 개입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항공사의 관점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보잉은 시스템의 불안전성을,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는 ①이 적절한 이해이다.

- 오답 풀이: ② 2문단에 따르면, 베테유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지만, 윌리엄 보잉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지는 알 수 없다. 윌리엄 보잉은 다만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가 조종사의 판단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③ 1문단에 따르면, 에어버스의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에서 자동 조종 시스템에게 통제되는 대상이지, 그것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주체는 아니다.
- ④ 보잉과 에어버스의 중요한 차이점이 자동 조종 시스템의 활용 정도에 있고, 보잉은 조종사가 대개 항공기를 조종간으로 직접 통제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보잉의 조종사가 자동 조종 시스템을 아예 활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 조종간(操縱杆): 『기계』 조종사가 항공기의 비행 방향과 운동 방향을 조종하는 막대 모양의 장치. 또는 그 장치의 손잡이

13.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포의 상태와 불안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두 감정을 함께 느끼거나 한 감정이 다른 감정을 유발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목도하고 공포에 빠진 사람은 자신도 언젠가 그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두 감정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하지만 두 감정을 야기한 원인을 따져 보면 두 감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공포는 실재하는 객관적 위협에 의해 야기된 상태를 의미하고, 불안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확한 위협에 의해 야기된 상태를 의미한다. 공포와 불안의 감정은 둘 다 자아와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도 차이를 찾을 수 있다. 공포를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불안의 경험은 '나 자신'이 위해를 입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 ①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포감에 비해 불안감이 더 크다.
- ② 전기·가스 사고가 날까 두려워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 ③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공포감에 빠져 있는 것이다.
- ④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공포감은 크지만 불안감은 작다.

정답: ②

해설: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불안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확한 위협에 의해 야기된 상태를 의미한다. ②의 전기, 가스 사고가 날까 두려워 외출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사고가 날까봐 두려움이 유발된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추론한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공포를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불안의 경험은 '나 자신'이 위해를 입을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포감이 클 것이다.
- ③ 불안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확한 위협에 의해 야기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공포감이 아니라 불안감에 빠져 있는 것이다.
- ④ 공포와 불안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어서, 둘을 함께 느끼거나 한 감정이 다른 감정을 유발할 때가 많다. 따라서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공포감이 크며 또다시 교통사고를 경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클 것이다.

유형 적중! 2023 나침판 기출 변형 모의고사 - 2회 9번 등 / 2023 실전 봉투 모의고사 1 - 제3회 6번 등

1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과학 혁명 이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로마 가톨릭교의 정통 교리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천문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따라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며, 모든 천체는 원운동을 하면서 지구의 주위를 공전한다는 천동설이 정설로 자리 잡고 있었다. 프톨레마이

오스가 천체들의 공전 궤도를 관찰하던 도중, 행성들이 주기적으로 종전의 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관찰 결과를 얻었을 때도 그는 이를 행성의 역행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천동설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 궤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원, 즉 주전원(周轉圓)을 따라 공전 궤도를 그리면서 행성들이 운동한다고 주장하였다.

과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결별은 서서히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행성들의 운동 이론에 관한 책을 발간한 일이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중심에 지구 대신 태양을 놓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하였다.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하였다.

- ① 과학 혁명 이전 시기에는 천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 ②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은 지동설을 지지하고자 만든 개념이다.
- ③ 천동설과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 ④ 행성의 공전에 대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설명은 코페르니쿠스의 설명보다 수학적으로 복잡하였다.

정답: ②

해설: 제시문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1문단에 따르면, 주전원이란 개념은 지동설을 지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프톨레마이오스가 자신의 관찰 결과를 천동설로 설명하고자 주장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알 수 있다. 즉 과학 혁명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따라 천동설이 정설로 자리 잡고 있었다.

- ③ ‘천동설은 우주의 중심을 지구에 두었으며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을 태양에 두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 ④ 2문단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하였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15. 밑줄 친 단어가 표준어 규정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저기 보이는 게 암염소인가, 수염소인가?
- ② 오늘 윗층에 사시는 분이 이사를 가신대요.
- ③ 봄에는 여기저기에서 아지랭이가 피어오른다.
- ④ 그는 수업을 마치면 으레 친구들과 운동을 한다.

정답: ④

해설: 으레(○)/으레(×): ‘으레’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표준어 규정 제10항).

오답 풀이: ① 수염소(×) → 숫염소(○):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지만, ‘숫양’, ‘숫염소’, ‘숫쥐’의 경우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표준어 규정 제7항).

② 윗층(×) → 위층(○): ‘윗-’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하지만,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표준어 규정 제12항).

③ 아지랭이(×) → 아지랑이(○): ‘아지랑이’는 ‘ㅣ’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표준어 규정 제9항 붙임 1).

적중 《2023 나침판 기출 변형 모의고사》 10회 4번 / 《2023 나침판 기출 변형 모의고사》 03회 핵심 자료선 / 《2023 매일 국어 시즌 2》 13회

16.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난독(難讀)을 해결하려면 정독을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독은 ‘뜻을 새겨 가며 자세히 읽음’, 즉 ‘정교한 독서’라는 뜻으로 한자로는 ‘精讀’이다. ‘精讀’은 ‘바른 독서’를 의미하는 ‘正讀’과 ㉠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무엇이 정교한 것일까? 모든 단어에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 정독(精讀)의 결과로 생기는 어문 실력이 문해력이다. 문해력이 발달하면 결국 독서 속도가 빨라져, ‘빨리 읽기’인 속독(速讀)이 가능해진다. 빨리 읽기는 정독을 전제로 할 때 빛을 발한다. 짧은 시간에 같은 책을 제대로 여러 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해력의 증가는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 즉 ㉢ 정속독(正速讀)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정독이 생활화되면 자기도 모르게 정속독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뭐든지 확실히 읽고 빨리 이해한다. 자연스럽게 집중하고 여러 번 읽어도 빠르게 읽으므로 시간이 여유롭다. ㉣ 정독이 빠진 속독은 곧 빼먹고 읽는 습관, 즉 난독의 일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① ㉠을 ‘다르게 읽지만 뜻이 같다’로 수정한다.
- ② ㉡을 ‘정독(正讀)’으로 수정한다.
- ③ ㉢을 ‘정속독(精速讀)’으로 수정한다.
- ④ ㉣을 ‘속독이 빠진 정독’으로 수정한다.

정답: ③

해설: 어휘나 문장이 적절하게 쓰인 것을 찾는 문제이다.

정독(精讀)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 문해력이며 문해력이 발달하면 속독이 가능해지고, 또한 빨리 읽기는 정독을 전제로 할 때 빛을 발한다. 따라서 ㉢ ‘정속독(正速讀)’을 ‘정’의 한자만 바꾸어 ‘정속독(精速讀)’으로 수정한다는 방안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정독(精讀)과 정독(正讀)은 동음이의(同音異義)의 관계에 있다. 즉 둘은 ‘정독’이라고 동일하게 읽지만 정독(精讀)은 ‘뜻을 새겨 가며 자세히 읽음’, 정독(正讀)은 ‘바른 독서’로 뜻이 서로 다르므로 ㉠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정독(正讀)’의 뜻을 ‘글의 참뜻을 바르게 파악함’으로 풀이하고 있다.

- ② ‘모든 단어에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뜻을 새겨 가며 자세히 읽음’이란 의미의 정독(精讀)의 방법이므로 ㉡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 ④ 난독을 해결하려면 정독(精讀)을 해야 한다. 또한 정독(精讀)이 된 다음에야 속독이 가능해지고, 정독(精讀)이 생활화되면 정속독(精速讀)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정독(精讀)은 속독의 전제이며, 정독(精讀)이 빠진 속독은 난독의 일종이 되므로 ㉣은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17.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막바지 퇴악별 속
한창 매미 울음은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는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
지금은 아무 기척도 없이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천지(天地)가 하는 별의별
희한한 그들의 소리에
멍청히 빨려 들게 하구나.

사랑도 어찌면
그와 같은 것인가.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더니
얼마 후에는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하늘 위에 펼치기만 하노니.

- 박재삼, <매미의 울음 끝에>

- ①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 현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을 통해 사랑의 속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을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박재삼의 <매미 울음 끝에>는 한여름의 매미 울음을 통해 화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속성을 형상화한 시이다.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은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반어적 표현이 아니라, ‘고요하여 괴괴함’이란 의미의 정적(靜寂)을 소리와 함께 쓴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희한한 그들의 소리에 / 명청히 빨리 들게 하구나”에서 시각을 청각화한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매미 울음이 끝난 후 조용해진 자연 현상에 대한 감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매미 울음’, ‘쟁쟁쟁’ 등에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또한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더니”,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 하늘 위에 펼치기만 하노니”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 ③ 이 시의 화자는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계절의 변화와 함께 한순간에 사라지는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을 깨닫고 있다. 즉 ‘소나기’가 그친 후에 ‘맑은 구름’이 눈부시게 하늘에 펼치기만 하듯이, 열정적인 사랑 역시 끝난 후에는 고요함만이 남는 것이다.

18.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루카치는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 개념을 기준으로 세 시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시대에서 후대로 갈수록 총체성의 정도는 낮아진다. 첫째는 총체성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는 ‘서사시의 시대’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얽혀 있다. 인간들이 그리스와 트로이 두 패로 나뉘어 전쟁을 벌일 때 신들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두 패로 나뉘어 전쟁에 참여했다. 둘째는 ‘비극의 시대’이다.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는 총체성이 흔들려 신과 인간의 세계가 분리된다. 하지만 두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고 신탁이라는 약한 통로로 이어져 있다. 비극에서 신은 인간의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신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그저 전달하는 존재로 바뀐다. 셋째는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철학의 시대’이다. 이 시대는 이미 계몽된 세계여서 신탁 같은 것은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신과 인간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신의 세계는 인격적 성격을 상실하여 ‘이데아’라는 추상성의 세계로 바뀐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그 사이에 어떤 통로도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분리된 세계가 되었다.

- ① 계몽사상은 서사시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었다.
- ② 플라톤의 이데아는 신탁이 사라진 시대의 비극적 세계를 표현한다.
- ③ 루카치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그리스 세계를 세 시대로 구분하였다.
- ④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

정답: ④

해설: 제시문과 부합하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루카치는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 개념을 기준으로 세 시대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시대에서 후대로 갈수록 총체성의 정도는 낮아진다. 즉 ‘서사시의 시대 → 비극의 시대 → 철학의 시대’ 순으로

총체성, 즉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비극의 시대’에 속한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 ‘서사시의 시대’에 속한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을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계몽사상이 서사시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었다는 내용은 제시문에 없다. ‘철학의 시대’는 이미 계몽된 세계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② 플라톤의 이데아는 비극적 세계가 아니라 철학의 세계를 표현한다.
③ 루카치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그리스 세계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총체성’이라는 단일한 개념을 기준으로 세 시대를 구분하였다.

19.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몽유록(夢遊錄)은 ‘꿈에서 놀다 온 기록’이라는 뜻으로, 어떤 인물이 꿈에서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만나 특정 사건에 대한 견해를 듣고 현실로 돌아온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 꿈을 꾸 인물인 몽유자의 역할에 따라 몽유록을 참여자형과 방관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에서 만난 인물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고 토론과 시연에 직접 참여한다. 방관자형에서는 몽유자가 인물들의 모임을 엿볼 뿐 직접 그 모임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16~17세기에 창작되었던 몽유록에는 참여자형이 많다.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와 꿈속 인물들이 동질적인 이념을 공유하고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비판적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주로 17세기 이후에 창작된 방관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다. 이 시기의 몽유록이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으로 변모하는 것은 몽유자의 역할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 ①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에 따라 몽유록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
② 17세기보다 나중 시기의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③ 몽유자가 모임의 구경꾼 역할을 하는 몽유록은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④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몽유록은 참여자형에 해당한다.

정답: ②

해설: 제시문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몽유록에서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17세기보다 나중 시기가 아니라 16~17세기의 몽유록에서이다.

- 오답 풀이: ① 몽유록은 몽유자의 역할에 따라 참여자형과 방관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 데 반해 방관자형의 몽유자는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에 따라 몽유록의 유형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③ 몽유자가 모임의 구경꾼 역할을 하는 몽유록이란 방관자형을 말한다. 17세기 이후에 창작된 방관자형 몽유록이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으로 변모한다는 내용에서 ③을 알 수 있다.
④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와 꿈속 인물들이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비판적 목소리를 낸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20.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의 세계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개념은 유사하지만 활용 목적 측면에서 구별된다.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융합된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제·사회·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반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공간, 환경, 공정 등을 컴퓨터상에 디지털 데이터 모델로 표현하여 똑같이 복제하고 실시간으로 서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이용자는 가상 세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

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수익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안정성과 경제성 때문인데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 놓은 가상 세계에 데이터를 전송, 취합, 분석, 이해, 실행하는 과정은 실제 실험보다 매우 빠르고 정밀하며 안전할 뿐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든다.

- 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률이 향상되었다.
- ②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의 각종 실험 모델보다 경제성이 낮다.
- ③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 ④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이용자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답: ③

해설: 제시문과 부합하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디지털 트윈의 이용자는 가상 세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데,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의 위험 요소를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디지털 트윈과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률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제시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② 디지털 트윈이 가상 세계에 데이터를 전송해서 실행하는 과정은 실제 실험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내용이 있다.

즉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의 각종 실험 모델보다 경제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이다.

④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은 디지털 트윈이 아니라 메타버스이다.